R10. ggplot (4)

Position and coordinates

Sim, Min Kyu, Ph.D. mksim@seoultech.ac.kr



데이터 시각화 1 / 17 R10. ggplot (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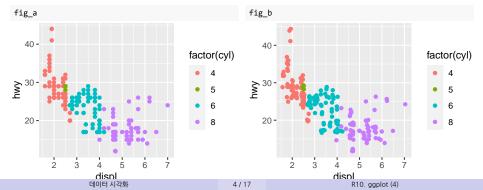
- Position adjustment
- Coordinate

Position adjustment

Scatterplot - position = "jitter"

- 데이터들이 중첩되는 경우에 노이즈를 넣어주는 기능
 -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overplotting 현상이 발생한다.
 - position="jitter"로 position에 perturbation을 가한다.
 - geom_point(position = "jitter")는 geom_jitter()와 같다.

```
fig_a <- ggplot(mpg) + geom_point(aes(displ, hwy, color = factor(cyl)))
fig_b <- ggplot(mpg) + geom_point(aes(displ, hwy, color = factor(cyl)), position = "jitter")</pre>
```



Barchart

- X축은 categorical 변수에 대응되고 Y축은 count 또는 density에 대응된다.
- geom_bar()의 aesthetics은 x, alpha, color, fill, linetype, size, weight이며 1변수 혹은 2변수를 제공하여 그릴수 있다.

1 변수로 그리는 경우

- x변수를 count하여 y의 aesthetic으로 사용한다.
- 즉, geom_bar()의 default statatistics는 count이다.
- 즉, geom_bar()의 인수로 stat="count"가 포함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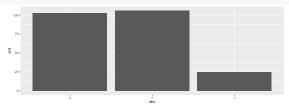
```
fig_c <- ggplot(mpg) + geom_bar(aes(x=drv))
fig c</pre>
```



2 변수로 그리는 경우

- Frequency table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다.
- y의 aesthetic을 사용하기 때문에 stat = "identity"을 명시한다.

```
df <- mpg %>% group_by(drv) %>% summarise(cnt = n())
fig_d <- ggplot(df) + geom_bar(aes(x=drv, y=cnt), stat = "identity")
fig d</pre>
```



1변수 vs 2변수

```
1 변수로 그리는 경우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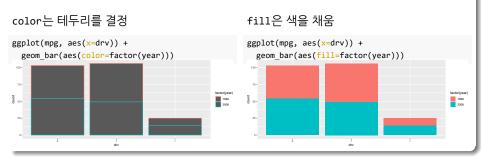
```
fig_c <- ggplot(mpg) + geom_bar(aes(x=drv))
```

2 변수로 그리는 경우

데이터 시각화 6 / 17 R10, ggplot (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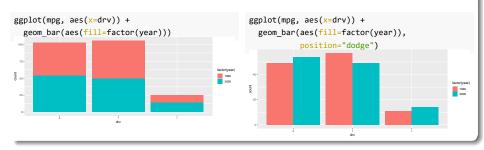
Barchart에 다른 Categorical 변수 추가

color VS fil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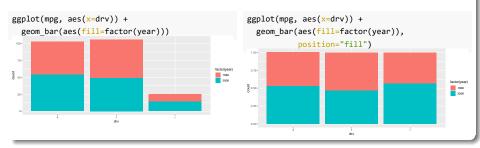
position="dodge"

• position="dodge"로 비껴서 나란히 배치한다.



position = "fill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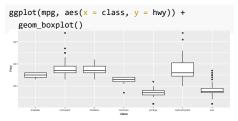
• position="fill"로 세로 포지션을 가득채운다. 갯수가 아닌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.



데이터 시각화 9 / 17 R10. ggplot (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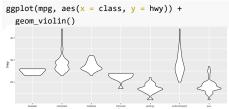
geom_boxplot() VS geom_violin()

geom_boxplot()



- 1. 박스의 가운데 직선은 "median"
- 2. 박스의 상하단은 "hinges"
- 3. 선의 상하단은 "whiskers"
- 4. 점으로 표현된 것들은 "outliers"
- 두 차트에서 글자의 크기를 키우면 X축의 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?

geom_violin()



- 바이올린 차트는 density curve를 드러나게 해주는 모던한 차트이다.
- 때로는 boxplot을 대체하여 유용할수도 있다.

Coordin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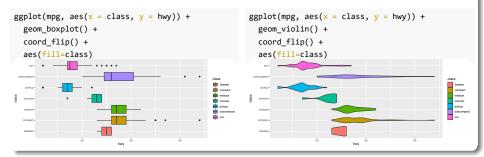
데이터 시각화 11 / 17 R10. ggplot (4)

coord_flip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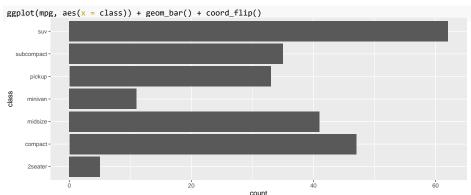
coord_flip()은 x축과 y축을 바꾸어준다.

```
ggplot(mpg, aes(x = class, y = hwy)) +
geom_violin() +
coord flip()
```

aes()를 나중에 더해도 된다.



Barchart에서도 때로는 coord_flip()이 유용하다.



• 파이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? 바차트와 파이차트의 차이는 무엇인가?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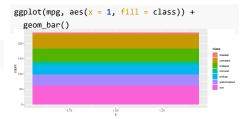
데이터 시각화 14 / 17 R10. ggplot (4)

coord_polar()

- 직각좌표계가 아닌 극좌표계를 사용한다.
- 파이차트를 만드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.
- coord_polar()에서 aesthetic인 theta가 일반적인 의미의 y축에 대응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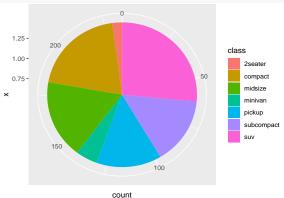
minivan

2. 그러므로 아래의 그림을 먼저 그린다.



3. Finally,

```
ggplot(mpg, aes(x = 1, fill = class)) +
  geom_bar() + coord_polar(theta = "y")
```



- axis를 지우면 파이차트가 완성된다.
- 막대그래프와 파이차트의 유일한 차이는 좌표계이다.
- Wickham은 파이차트가 일반적으로 poor한 choice라고 주장한다. Why?

데이터 시각화 16 / 17 R10. ggplot (4)

"Tantum videmus quantum scimus."

[1] "Tantum videmus quantum scimus."